

## 2012 INTERSTENO 중앙위원회의 및 IPRS 회의 참가보고

국제부

○기 간 : 2012년 9월 25일(화)~10월 3일(수)

○장 소 :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경유

○한국대표 : 정명순, 정순화, 김학순, 이승철, 서광식

○참가국 및 참가인원 :

14개국 76명 참가 (한국, 오스트리아, 중국, 벨기에, 체코,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미국, 캐나다 등)(IPRS 43명, 중앙위원회 30명, 경기심사위원회 7명, 이사회 8명 참가. 중복참가자 있음.)

○참가목적 :

- 기록문화와 속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사항 논의
- 우리나라의 속기 및 속기사 양성 체계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선진국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대의원회의 · IPRS 일정

월 일	장소	일정
9월 26일(수)	부다페스트	헝가리 경유
9월 27일(목)	빈	오스트리아 의회방문
9월 28일(금)	빈, 프라하	오스트리아 경유
9월 29일(토)	프라하	인터스테노 참가등록 IPRS 1차 미팅 중앙위 1차 세션
9월 30일(일)	프라하	IPRS 2차 미팅 중앙위 2차 세션 중앙위 3차 세션 인터스테노 125주년 기념만찬
10월 1일(월)	프라하	체코 의회 방문 중앙위 4차 세션
10월 2일(화)	프라하	보헤미아 유리공장 방문
10월 3일(수)	프라하	체코출발

##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 및 INTERSTENO 참석 주요내용

### 1. 오스트리아 의회 방문(9월 27일)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겸 주 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이종후 공사의 안내로 그리스 신전을 모델로 1883년에 건립한 오스트리아 의사당 참관. 상원, 하원 회의장과 제국회의 회의장을 참관함.

오스트리아는 9개 주가 연합한 연방공화국으로서 의원내각제 국가임.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임기 5년)은 183석, 상원(임기 5-6년)은 62석으로 구성되고 있음. 2008년 9월 총선 결과 하원은 사민당 57석, 국민당 51석, 자유당 34석, 미래연합 21석, 녹색당 20석으로 사민당과 국민당의 대연정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 하인쯔 피셔 대통령(임기 6년)이 재선되었음.

휴회 중이어서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속기담당 직원들과 미팅은 할 수 없었

음.

## 2. 인터스테노 이사회(9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인터스테노 이사회가 비공개로 개최되었음. 한국은 이사회 멤버가 아니므로 옵서버로도 참석하지 못했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 감사, 경기 심사위원장, 과학위원장, 교육위원장, IPRS 책임자 등 총 8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회장 겸 이사장은 이태리의 Fausto Ramondelli이며, 대부분 유럽국가인들이 이사인데 교육위원장 Simon Sun Hulmin이 중국인으로서 유일한 동양인이었음. 동 이사회의 이사장이자 회장인 Ramondelli의 회장 보고서를 참고해서 의제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제들이 논의된 듯함.

가. 벨기에의 겐트에서 열리는 2013년 인터스테노 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점검 및 격려하고, 회원국들의 참여에 대한 독려.

나. 미국의 NCRA(법원속기사협회), 미국의 NVRA(음성인식 속기사협회), 인터스테노의 IPRS, 아르헨티나 속기사협회, 크로아티아 속기사협회, e-Parliament(전자의회) 등 유사 관련단체들과의 관계증진 실적 보고.

다. 인터스테노의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웹사이트와 전단지 활용하는 방안 강구.

라. 인터스테노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서 10년된 인터넷 경기대회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마. 인터스테노의 이익에 합치되는 지역 과제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바. 마케팅과 행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유급직원을 두는 방안 강구.

## 3. 인터스테노 경기심사위원회(9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국제경기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개최되

있음. 이 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들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경기대회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바, 국제경기 심사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보면 주제 제안자가 7명인 것으로 보아 최소한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것으로 판단됨. 이들이 공표한 논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음.

가. 2013년 인터넷 경기대회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경기대회 날짜와 기간에 관한 것, 새 자격증의 레이아웃과 pdf 파일로 자격증을 국가별, 학교별로 전달하고 이를 프린트할 용지를 공급하는 것, 경기용 시험원고는 가능한 한 2월 15일 이전에 각 대표들에 의해 발송될 것, 연령별 구분을 위한 생일기준 변경과 분당 180자를 150자로 낮추자는 제안에 대한 논의 등 경기규정에 관련된 사항들 등.

나. 2013년 겐트 총회시 경기용 시험원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RT(real time) 실시간 속기경기의 기준언어로 영어가 적합한가 하는 문제, 시험용 원고 번역 제출시한 결정에 대한 것,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문제 등.

다. 경기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승자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와 2등과 3등도 인증서와 메달을 시상식에서 함께 주자는 문제, 경기대회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국가회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 중국어 번문 작성시 오자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자는 의견, 보통 키보드사용자들 중에 약어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별도의 범주를 적용하자는 의견, 실시간(RT) 속기경기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시간 8분을 주는 것은 너무 길다는 의견, 연설 기록하기 경기(SC)의 기준을 조금 상향조정하자는 의견, 연계경기에서의 메달과 인증서를 주는 문제 등.

라. 연설기록하기 경기(SC) 참가 속기사들은 경기 하루전날 시험 원고보다 긴 원고를 낭독자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기록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 훈련 기회를 주자는 의견.

마. “연설에서 문서로”라는 음성인식에 의한 기록경기 등 새로운 경기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7개의 상이한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자도 부족한 형편이며, 언어별로도 동일한 음절 기준을 적

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상존하는 형편 등을 이유로 곤란하므로 그 대신에 실시시간 속기(RT) 방식의 시간을 10분이나 12분으로 늘리거나 빠른 번문경기로 되돌아가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의견.

바. 교정과 경기 분류표와 관련하여, 10명의 우수선수들의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제2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심사위원들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요약속기경기 시에는 참가 선수들이 타인의 원고에 대하여 일차적인 교정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

사. 기타사항으로 연설기록경기(SC)시의 칼럼의 문제, 타이프라이팅과 속기간에 경쟁하는 경기의 도입에 대한 의견 등.

#### 4. IPRS 1차 미팅(9월 29일)

IPRS 책임자인 네델란드의 Ms. Rian Schwarz는 환영 인사말을 하고, 첫째로, 2011년 파리에서 있었던 IPRS 미팅 결과를 보고하고, 둘째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IPRS의 활동을 보고하였음.

이어서,

“회의록 작성을 녹음과 녹화와 동조화하는 것은 속기사들이 회의록을 편집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델란드의 Ms. Marlene Rijkse 의 발제를 듣고, 4개 분임으로 나뉘어 토의한 다음, 분임별로 토의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함. 제1분임에는 정명순 사무관이, 제2분임에는 정순화 홍보이사가, 제3분임에는 김학순 주무관이, 제4분임에는 서광식 경남도 의사담당관과 이승철 고문이 배정되어 각각 별도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

두 번째 주제 “발언자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속기사의 임무인가?”에 대해서는 캐나다 상원에 근무하는 Mr. D'Arcy McPherson의 영상전화를 통한 발제를 듣고 체코와 캐나다라는 먼 거리를 영상통화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IPRS 회원들과 회의를 하고 주제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을 나누었음.

## 5. 중앙위 1차 세션(Council Meeting: First Session)(9월 29일)

개회식을 하기 전에 회장은 금년 초(2012년 1월 11일)에 타계한 명예회장 William Bonnet을 비롯한 몇 명의 세상을 떠난 회원과 그 부인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여 묵념으로 회의가 시작됨.

이들에 대한 묵념 후에 회장(Fausto Ramondelli)은 개회선언과 환영사를 마치고 중앙위원회의 의제를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함.

- 금년 9월 초 미리 배포한 회장과 사무총장(Denny Devriendt)의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승인함. 회장은 인터스테노의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세대가 형성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사무총장은 인터스테노의 미래계획을 보고함.

(동 보고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2. 인터스테노 이사회” 내용 참조)

- 2011 제48차 파리 총회에 대해서 프랑스 회장 장 샤를(Jean-Charles L Masson)이 보고하고 이를 승인함.)

- 사무총장은 새로운 인터스테노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한 것과 각종 행사에 스폰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인터스테노의 예산과 재정상황에 관해서 보고함.

- 인터스테노 12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보고함. 금년에 런던에서 긴 역사를 가진 인터스테노 기념행사를 가질 것이며, 이번 중앙위원회 기간 중에는 프라하에서 기념행사를 할 것임을 보고함. 그리고 이러한 인터스테노 역사에 관한 책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 책을 e-Book이나 DVD 등으로도 제작할 계획임을 언급함.

- IPRS의 책임자인 Rian Schwarz-van Poppel이 미국의 NCRA 총회에 참석하는 등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IPRS의 활동에 관해서 보고를 함.

(10분간 휴식 후 회의 계속)

● 2013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벨기에의 겐트에서 열리는 제 49차 인터스테노 총회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사무총장 Denny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속기 경기대회장소의 책상의 크기, 장소의 수용인원, 소음문제 등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함. 참고로 Denny는 인터스테노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이며 동시에 벨기에 겐트 총회의 준비위원장이기도 함.

## 6. IPRS 2차 미팅(9월 30일)

“\*Virtual Reporting은 프리랜서 속기사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미국의 Ms. Patti Calabro의 발제에 이어서 4개 분임으로 나누어 토의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함.

\*모든 회의 참가자들이 스마트 전화기나 웹 카메라가 장착된 PC를 통하여 회의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회의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속기방식

이어서 네덜란드의 Ms. Lida Horlings 의 주도하에 IPRS의 미팅방식이 오늘처럼 바뀐 것은 지난 파리 IPRS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 후, 향후의 IPRS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그리고, 독일팀에 의한 virtual reporting 신기술에 관한 시연이 있었는데 7cm 정도의 안테나가 달린 자그마한 USB를 꽂기만 하면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속기록이 자막으로 뜨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었음. 그 이름은 “TEXT-On-Top” 이었으며 독일의 Ms. Kimmerly Turnage가 시연했음. 최초의 실시간 자막달기 무선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했음.

또한 네덜란드의 Ms. Marianne van Gool에 의한 새로운 속기 타자기 시연이 있었는데 "veyboard"라는 이름의 속기 타자기로서, 기존에 사용하는 건반식 타자기가 아니라 pc용 자판을 손가락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가운데는 모음, 좌우에는 자음을 한 묶음으로 배치하여 동시에 키를 눌러도 자모를 모두 인식하여 글자를 화면에 바로 떠올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였음. 우리 한글의 구성 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대로 자판을 배열한 것이 꼭 한글의 특징을 차용한 듯이 보였음.

그리고는, 미국의 Ms. Linda Drake에 의한 음성인식장치의 시연이 있었음. 이 장치는 등록된 사람의 목소리만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변의 소음을 방지하고 음성기록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성기록을 하고 있었음.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발언자의 말을 바로 뒤따라가면서 되풀이하면 이를 기계가 인식하여 화면에 문자를 띄워주는 방식이었음.

이러한 시연을 본 후에 우리 대표단은 한국의 속기계 현황에 대한 발표를 간략하게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음. 여러 나라 대표단은 우리 속기계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음.(한국 속기계의 현황 소개 자료는 뒤에 첨부함.)

끝으로 IPRS의 책임자인 Ms. Rian Schwarz-van Poppel은 IPRS 운영위원회는 IPRS 회의를 준비 계획함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했다고 했음. 이전 IPRS 회의 시에 때로는 간단한 토론이 있기는 했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오늘 프라하에서의 IPRS 회의는 참가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했고, 이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워크숍에 그룹별로 참여하여 토론을 해야만 했음. 때로는 열면 토론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새로운 방식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Ms. Rian은 겐트에서는 보다 더 많은 워크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고 함.

## 7. 중앙위 2차 세션(Council Meeting: Second Session) (9월 30일)

### ● 2013년 인터스테노 총회 학술회의의 날에 관한 논의.

- ① 인터스테노의 이익에 부합하는 회원이 제출한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공모하기로 함.
- ② 겐트 총회는 보다 많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학술토론 주제에 집중하기로 하고 관련 논문을 공모하기로 함.
- ③ 네덜란드의 Ms. Lida Horlings는 이사회가 인터스테노의 가치를 향상시

킬 수 있도록 그 로고개발이나 이사회 활동 등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요원이 이사회를 지원하도록 하기로 함.

④ 회원의 경력을 근거로 하여 속기업무의 표준 자격사항을 다양하게 준비 하기로 함.

⑤ 재판용 음성파일 변문 경기 참가자들은 일반 문서가 아닌 음성파일을 변 문하게 될 것이며 심사위원들은 그 관련 규칙들을 검증하기로 함.

● (2010년 4월 30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각국의 제안들에 대한 검토. 그 리고 경기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미리 심사평가되어 중앙위원회에 최종 제안 으로 제출된 제안들에 대한 검토.(2013년 경기 관련사항)

① 인터넷 키보드 입력경기:

경기 기간: 2013년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선수 등록: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유의 사항: 연령범주와 최소속도에 관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유일한 분류표인 연령범주 관련 분류표가 사용되는 기술 과 무관하게 배포될 것임.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분류표 에 명시될 것임.: 예를 들면 KB는 컴퓨터 키보딩에 대 한 약자로, SM은 부호화 키보딩(속기타자기 등)에 대한 약자로 명기됨.

회장은 2013년에 이 경기 참가자들을 두 배로 증가시키자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는 페이스북에 추가 메시지를 올림으로써 달성되 도록 할 것임.

② 시상식:

세계 챔피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쏟아 부는 노력을 감안하여, 챔 피언이 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라도, 각 연령 그룹의 각각의 경기마다 시상대에서 세 명의 최우수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 여하기로 결정했음.

③ 실시간 속기 경기:

실시간 속기 경기 시 젊은이들의 참가 동기유발을 위하여 선수들이 학생(pupil)의 경우는 최소한 4분간, 청년(junior)의 경우는 최소한 6분간 속 기할 수 있다면 그들을 세계 챔피언으로 고려할 것임. 숙련자(senior)들의 경우에는 최소 속기시간 8분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함.

④ 서신과 요약속기:

서신과 요약속기 경기대회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는 학생들에게는 250점 대신 230점으로 역시 하향 조정되었으나, 숙련자들에게는 270점에서 280점으로 약간 상향조정하였음.

⑤ 연계 명부 인증:

끝으로, 다수 경기 참가자들 중 최고의 성적을 얻은 세 명의 선수들에게 연계 명부 확인서를 주고, 메달을 수여함으로써 다수 경기 참가 선수들도 인증해주기로 함.

⑥ 음성파일 변문경기:

인터넷을 통한 파일전송 가능성 향상과 함께 디지털 녹음기술의 발달은 변문과정을 통하여 문서작성(속기록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 속기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변문과정은 키보드로도, 속기기계로도, 혹은 음성인식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 속기인들은 기술적인 변화에 뒤지지 말아야 하고, 다른 이익단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인터스테노는 우리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된 범주에 따라서 2013년 실험적인 음성파일 변문경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여기에는 공식적인 성적이나 챔피언도 없을 것임. 그러나 이것은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식 분류 목록상 “속기”의 한 종류로 분류 통합될 것임.

## 8. 중앙위 3차 세션(Council Meeting: Third Session)(9월 30일)

● 인터스테노 교육위원장 Simon Sun은 교육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에 등록시 1인당 등록비를 5유로씩 받자는 제안을 했음.

● 인터스테노 과학위원장 Jean-Charles Le Masson은 과학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음.

● 인터스테노 회장 Fausto Ramondelli는 e-mach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인터넷 경기대회와 2013년 인터넷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 하루에 1000회, 2000회 방문하는 웹사이트 정체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인터스테노 웹 사이트와 의사소통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함.

● 인터스테노 회장 Fausto Ramondelli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NS나 페이스북, 리플릿 등을 이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인터스테노 회장 Fausto Ramondelli는 회원자격을 검토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총회나 경기대회에 참석하고자 신청하는 선수들에 관해서 내셔널 그룹으로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그리고 미국의 NCRA와 NVRA에게 회원자격을 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준회원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을 언급함.

● 겐트에서의 2013년 중앙위원회와 총회 이후 다음 총회와 중앙위원회 모임 장소에 관한 논의와 관령하여 현재 2015년 총회와 중앙위원회의 후보지로 뉴욕, 베를린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베를린은 현지에 살고 있는 회원이 없으며 관련 기관 등과 커넥션이 없고 의회 속기사들은 폭증하는 업무에 시달려 속기경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그리고 뉴욕은 2015년에 미 전역의 컨벤션과 겹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베를린은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고려해보고 11월 말까지 답을 주시기 바라며, 뉴욕은 숙소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고 추가로 의논을 해보기로 함.

## 9. 체코 의회방문(10월 1일 오전)

체코 공화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하원은 임기 4년의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임기 6년의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2006년 사회민주당이 시민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이후 현재 시민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서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재선된 후 임기를 1년 여 남겨두고 있음. 총리는 시민 민주당의 페트르 네차스 총리가 맡고 있음.

체코 의사당은 체코 국왕의 궁전으로 건축된 바로크식 건물인데 현재는 이를 리모델링하여 박물관 겸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출입자 단속이 삼엄하며 체코 대표의 안내를 받아 입장했음.

의사당 내의 한 회의장에서 인터스테노를 지원하시는 상원의원을 모시고 인터스테노의 활동에 관한 보고회를 가진 후, 상원의원의 인터스테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회장이 인터스테노 기를 선물함. 이어서 체코 의사당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체코의회 속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속기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 10. 중앙위 4차 세션(Council Meeting: Fourth Session) (10월 1일 오후)

### ●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

Fausto Romondelli 회장은 겐트 총회를 위한 마케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마케팅은 오직 내셔널 그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경기심사위원장인 Georgette Sante는 IPRS처럼 작은 그룹, 큰 그룹을 만들어 인터스테노가 무엇인지를 홍보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안함.

Fausto Romondelli 회장은 속기업무나 발언의 문서화작업에 대한 인터스테노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력이나 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필요사항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함. 이에 대해서 프랑스 대표이자 과학위원장인 Jean Charles은 근무기관 적합성, 근무능력, 기술력 등을 질문서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고 함. 이에 대해 미국의 NCRA 대표인 James M. Cudahy는 미국의 경우는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격증 필요사항을 표준화하고 있음을 설명함.

Fausto Romondelli 회장은 상이한 자격증이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 그리고 예산과 프로젝트의 산출물간에는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주문함. 이에 대해서 경기심사위원장인 Georgette Sante는 회사들과 연계한 전문가 자격시험은 NCRA,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시작

되었음을 지적함. 사무총장 Danny Devriendt는 기술력을 검증하는 자격증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속기록이라는 윤리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함.

## 11. 보헤미아 유리공장 방문(체코 북부지방) (10월 2일)

말로만 듣던 보헤미아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음. 체코의 북부 지역에 있는 농업지대였으며 그 농업지대 가운데에 손으로 유리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음. 체코의 유리 공예품은 수제품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 역사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인터스테노 회원들은 한 유리공장을 방문하고 이 공장에서 유리 공예 작품 만드는 공정의 일부, 즉 긴 대롱에 유리 원료를 문혀서 불어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기도 하였음.

##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에서 앞서가는 속기계 현황과 한국회의의 속기와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로 국제적 위상 제고.
- 회의록 작성과정에 관한 다양한 각국별 경험과 정보의 상호 교환.
- 속기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등 각국 대표단에 우리의 체계적이고 왕성한 속기사 양성 체계를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음.
- 음성인식장치를 이용한 연설기록방식과 Veyboard라는 새로운 기계속기방식, 그리고 Text-on-top이라는 와이파이 장치를 장착한 실시간 속기장비의 시연을 접하는 등 다른 나라의 기계속기 방식을 한국 기계속기 방식에 접목할 연구 기회와 아이디어를 얻게 됨.

- 지난 번 회의 때와 다른 사람들도 참석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속기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속기관계인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국제관계 속기협회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됨.
- 중앙위원회에는 중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나, 금년 IPRS 회의에는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에서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하여 동 회의에 참석한 유럽과 미 대륙 대표들에게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크게 부각됨.

## ○건의 사항

- 한국 의회와 속기계의 선진적 기술에 의한 속기록의 작성과 체계적인 속기사 양성에 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속기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스테노 총회 등 공식적인 국제행사 뿐만 아니라 각국 속기협회 간 비정기적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제 속기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경기대회, 지역프로젝트의 공모, 젠트 총회 학술대회를 위한 논문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이러한 국제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터스테노 회장과, 체코인 부회장, 그리고 사무총장과 과학위원장의 조언이 한결같이 한국의 서울에서 2016년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사타진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가부간에 그 답을 인터스테노 이사진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 Fausto Ramondelli 회장은 속기 경기대회시의 채점과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또 요약속기 경기심사위원장인 Jan den Holder는 한글속기채점 기준과 관련하여 한글은 한 글자가 한 음절인가 아닌가, 그리고 분당 속기 기준이 음절인가 글자인가를 문의한 바 있음.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한글속기 채점 기준과 관련되는 한글 음운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인터스테노 회장과 경기심사위원장에게 보낼 필요가 있음.

-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나 총회 등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계를 가질 필요도 있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관계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인원 1인에 새롭게 참석하는 인원 2-3인을 배합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한국 속기계 현황에 관한 발표자료

#### **Report on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Stenography**

30. September. 2012

Seung Chul Lee

Adviser to Korea Stenography Association

Ladies and Gentlemen,  
IPRS members!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Stenography(Association), on behalf of Kyung Sik Lee, the chief director of Korea Stenography Association.

Before the presentation, first,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the chief director of KSA, Mr. Lee told me to say hello to you, Council members and IPRS reporters. Secondly, I would like to introduce Korean delegation to this meeting.

Section chief of the Stenography Depart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Myung Soon Jung,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of KSA, Soon Wha Jung,  
Editor of the Stenography Depart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Hak  
Sun Kim,  
Public officer in Kyongnam Province local assembly, Goang Sik Seo,  
and this is Seung Chul Lee, Adviser to KSA.

Now, let me introduc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 Stenography  
briefly.

In Korea, the stenography began to be used for keeping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year 1948, three years after the  
World War II.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Parliament, has begun in that year, and we stenographers took notes  
of its all proceedings from the opening day till now.

Concerning the shorthand technology, we began with pen shorthand,  
but from the late 1980s, the machine shorthand was introduced. At  
first, there were two kinds of style, regular PC keyboard and Chord  
keyboard style, but now the Computer Aided Steno-machine(CAS) is  
the main stream of machine shorthand in Korea. CAS is a popular  
brand name in Korea.

Looking back over the 65years' history of Korea Stenography, from  
the early 1980s the demand for stenographers became slow. But,  
around the late 1980s, the local autonomy was carried into effect and  
the demand for stenographers of the local assembly was raised up  
quickly, and at the same time, the demand for the transcription  
service in the courts, the demand for captioning and subtitling in the  
broadcasting companies were increased rapidly. Consequently, the  
gradual decrease of the demand for stenographers in the early 1980s  
was reversed, in late 1980s, to the rapid increase of them with the  
introduction of CAS, the new shorthand technology!

Speaking of the stenographers wor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y are recording the Plenary Session and 18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for the recording Plenary Session, House Steering Committee, and for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Budget and Accounts, they make verbatim records. They deliver the records on the next day early morning. For the other standing committees, they also make verbatim records, but the delivery of the records takes 2 to 5 days after the closing of the meetings. And, they produce the records in a remote manner, not in a realtime manner in the National Assembly.

We have about 1700 stenographers and 3300 students who have learned or are learning machine shorthand in Korea. 1700 stenographers are work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in the National Assembly, local assembly, the court, and the othe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Especially, about 80 stenographers using CAS are working for the captioning and subtitling service in the broadcasting companies. They produce captions in a realtime manner.

I have read a writing of the President, Fausto Ramondelli from the E-news 52. "From the President's Desk" was the title. He puts the emphasis on the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and "Parliament reporting" as the expecting themes in 2013 Intersteno Congress in Ghent, Belgium. These two outstanding problems are the same questions in Korea. The rapidly increasing workloads of stenographers and the budget saving trends of institutions lead us to consider another new technology to cope with these two. So we have deep concern with the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and the other new technologies taking notes with less time and cost.

As I mentioned before, many stenographers, about 1700, are working in Korea. But, it is also true that they neither have so much satisfactory income, nor have much chances to promote themselves in their institutions. These make the young stenographers' working

period short, and that is why we can see little young male stenographers in this working field today. But the demand for the stenographers is steady, and more than 3000 students are learning stenography now in Korea. So, we have a hope still in this working field.

Now, I am closing my presentation and I would like to address my special thanks to Czech friends, Board member Ms. Rian Schwarz, IPRS Steering Committee Chair Ms. Lida Horlings, its member Ms. Marlene Rijkse, and Ms. Patti Calabro for allowing me to make a speech in this IPRS meeting.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